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연준, '제로금리' 유지 … "경제활동 저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 금리를 0~0.25%로 유지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준은 4일-5일, 이틀간 열 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위원 9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해진 수요와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연준은 "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행 과정에 크게 달렸다." 며 "지속 중인 공중 보건 위기는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계속 부담을 주고 중기적으로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평가하면서 위원



▲ Fed 건물 전경. 사진=shutterstock

회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 입수되는 정보의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통화 정책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됐다." 고 설명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제로' (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당분 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 유력'에 달러 가치 급락, 금값 폭등

지난 3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베팅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금값은 크게 올랐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로 달러화가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책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보다 팬데믹발 재정 지원의 규모가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미국채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요

인으로 작용해 달러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로이터는 "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약달러 전망이 커 지고 있다." 고 전했다.

반면 금값은 크게 올랐다. 지난 5일 뉴욕상품거 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54.90달러(2.9%) 뛴 1,951.10달러에 거래됐다. 대개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기에는 실물자산 투자가 금융자산 투자보다 유리하다. 실물자산 가운데 금은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 헤지 상품으로 꼽힌다.

현대차, 지난 10월 미국 소매 판매 급증

현대자동차의 소매판매 실적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차의 총판매량이 5만7천395대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 늘었고, 소매 판매는 5만2천 117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HMA는 전체 소매 실적의 68%를 차지한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판매량이 23% 급증한 것을 비롯해 전 차종에서 판매량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넥쏘 소매 판매는 118% 늘었고, 팰리세이드(73%), 코나(32%). 쏘나타(20%), 싼타페(11%)의 소매 판매도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현대차의 지난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1%였다

한편 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5만6,09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동월(5만7대)와 비교해 12.2% 증가했다.

판매가 늘어난 데는 텔루라이드의 역할이 컸다. 텔루라이드는 한 달간 9,697대 팔렸는데, 두 달 연 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신형 K5(7,528대), 쏘울(6,318대), 스포티지(6,989대), 셀토 스(5,542대) 등이 약진했다.



▲ 현대차 미국 소매 판매 증가를 견인한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